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74호

5월 17일

2025년

토요일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한기총, ‘WEA 서울총회’ 강력 반대

포럼개최...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에 물든 WEA, 서울총회 즉각 중단해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4월 29일(화)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신학·실천·역사적 관점에서 본 WEA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오는 2025년 서울에서 예정된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총회의 개최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포럼은 WEA의 신학적 방향성과 실천적 행보가 개혁주의 신학과 상충되며, 종교 혼합주의 및 다원주의로 흐르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에는 양진영 박사(광신대학교 조직신학), 서창원 박사(전 총신대신대원 역사신학), 김호욱 박사(광신대학교 역사신학)가 참여했다.

양진영 박사는 “WEA는 외형적으로 복음주의, 정통신앙,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로마 가톨릭, 이슬람, WCC 등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신학적 정체성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WEA의 실전은 성경적 진리를 훼손하는 ‘문화적 포용주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서창원 박사는 “WEA 부사무총장 사무엘 치앙이 무슬림 단체와 ‘최고의 친구’라고 밝힌 점이나, 국제위원장 굿윌 사나가 변영신학을 강조하는 것 등은 모두 WEA의 신학이 복음의 본질과 멀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총회 추진 과정에서 한국교회 전체의 합의가 없었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호욱 박사는 “WEA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수용하며 경계를 허물고 있다”며 “이는 종교혼합주의 및 다원주의적 성향의 구체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른 WEA의 행보를 볼 때, 로마 가톨릭과 무슬림과의 밀착 행보는 WEA의 신학이 종교혼합주의 및 종교다원주의 신

학임을 보여주는 일례”이며 “이에 ‘2025 세계복음주의연맹(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2025 WEA 서울총회’ 개최를 중단함으로 한국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을 소멸시키고 성경적 화합의 길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WEA 총회를 추진하는 일부 목회자들은 소속 교단의 지지조차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교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총회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WEA 총회 개최는 한국교회의 신학적 정체성과 영적 권위에 중대한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총회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WE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공식 출범했으며,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정의섭 목사)는 지난 5월 9일(금)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지난 회기 총회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새 회기년도 준비했다. 이날 감사는 위원장 정의섭 목사의 지도로 시작하여 제반사항과 각종 영수증과 서류들이 규정에 의해 잘 갖춰지고 교단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윤병하 목사)는 지난 5월 9일(금)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새 회기년도 예산심의를 갖고 규모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윤병하 목사의 지도로 시작하여 특히 꼭 필요한 곳에 공정하고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안을 세웠다.

다수국민의 인권 역차별 중단 촉구

“퀴어축제 불참 선언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혐오세력?”

친동성애 단체들이 퀴어축제 불참을 선언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으로 매도한 데 대해,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은 1일 오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국민의 인권 역차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알고 공분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며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

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고이며,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는 매우 위험하고 독선적인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일부 인권위 직원들의 노골적 중립의 무 위반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가공무원인 인권위 직원 중 일부가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인’을 결성하여 그 이름으로 퀴어 축제에 참여해 부스까지 차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절대 좌시하지 않고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퀴어축제 축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배제당해온 우리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익적인 행동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의 세균

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재정 지원을 해온 과거를 강력 규탄하며 더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특정소수집단을 비호하며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록 부추기는 한국기자협회와 협약한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라! 등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의 참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퀴어축제 축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



조용목 목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신 28:9)

관념이나 신앙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길과 같은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노력과 수고도 허사입니다. 사람이 선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은 신앙노선 선택입니다. 그 영향과 결과가 이 세상뿐 아니라 내세의 삶에까지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에 관하여 네 종류의 노선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신론 노선이 있습니다. 무신론 가운데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의롭고 진실하며 죄인을 심판하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무신론에 기반을 둔 철학이나 사상이나 체제는 본질적으로 잘못된 노선입니다. 둘째는, 불가지론 노선이 있습니다. 불가지론은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존재에 대하여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불가지론자들의 핑계가 억지 주장인 것을 밝히 드러낸 말씀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우상종교 노선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외에 신앙 대상으로 삼는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넷째는, 기독교 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 역시 하나님의 계시 없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계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노선입니다. 일반 종교의 테두리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여도 실상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신앙노선을 다섯 종류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율법주의 노선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가혹하도록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함으로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왜곡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인간의 범죄를 드러내는 한편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니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터는 어떻게 행하여도 천국에 간다고 주장하는 신앙노선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라합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보충하여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율법을 행하는 행함이 보충되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신앙노선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며, 라합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라합의 행동이 그녀의 믿음을 보충하여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라합의 온전한 믿음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넷째는, 혼합주의 신앙노선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종교의 경전도 그러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라고 믿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많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일치, 종교다원회의 물결이 전 세계에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노선을 좇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섯째는,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신앙노선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절대적 기준인 것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아 의롭게 되고 구원 얻게 됨을 믿습니다. 구원 얻기 위하여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특권으로 알며 즐겁게 행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은혜와진리교회)

화재 피해 성도 돕기 긴급 기도 및 지원 요청

“여러분께 간절한 기도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괴산순복음교회(담임 기호선 목사) 성도이며, 김세희 사모의 친정어머니이신 심정섭 집사님의 자택이 5월 12 일(화) 오전 11시경, 원인 불명의 화재로 전소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당시 심 집사님은 요양보호소 주간보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기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거주하시던 집이 완전히 소실되어 삶의 터전과 생활필수품 전부를 잃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정섭 집사님과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당장 생필품과 재정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정 세력과 결탁하여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한 인권위 직원들의 오만불손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며, 공무원에서

다. 주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기도과 후원 안내

후원 및 물품 전달처: 괴산순복음교회

충북 괴산군 문광면 괴산로 송평길 105-7

문의 및 연락처: 010-5145-3816(심정섭 집사 가족 연락처)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손을 맞잡아주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물러나 시민활동가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등을 밝혔

3면으로 이어집니다

한기총, 산불 피해지역에 2차 지원 성금 전달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상급이 되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지난 4월 28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지역 연합회 목회자들과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 교회 군 기독교연합회 위로예배 및 전달식'을 갖고, 각 연합회에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이곳에는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진 진짜 목사님들이 계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후원이 들어오면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돕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공동회장 심하보 목사는 ‘냉수 한 그릇’(마 10:42)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친절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니 앞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큰 상급이 됨을 믿고, 오늘도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설교했다.



예배에 참석한 영덕군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충연 목사는 “이번 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교회들과 지역 사회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도움의 손길이 위로가 될 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된다”며 “전화위복이 되어 더 크게 복음이 전파되고 지역을 살리

는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기총은 지난 17일(목)에 의성, 청송, 영덕, 안동 등 경북 지역 교회와 지역 연합회를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성금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전달식을 통해 그간 모은 성금을 모두 전달하며 산불피해 교회들의 회복을 지원했다.

한장총, 부흥목회로 새로운 교회부흥 전인

4월 28일~5월 1일까지 주다산교회에서 ‘2025 살롬부흥 목회세미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권순웅 목사)가 주최하고 살롬부흥세계선교회가 주관한 ‘2025 살롬 부흥 목회세미나’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다산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목회세미나는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 아래 주다산교회 권순웅 목사를 주강사로 하여, 소그룹목회 전문가인 이상화 목사(서현교회)와 스파크 양육교재 공동저자인 권지현 목사(다음세대교회)가 강의를 진행했다.

첫날 개회예배 및 강의에서 권순웅 목사는 살롬부흥 7-UP 목회에 대한 내용으로 개혁신학 목회적 적용, 예배, 소그룹, 제자양육, 전도, 다음세대, 리더십 개발을 강의했으며, 주다산교회의 축복셀전도와 가족셀 현장을 함께 참관하기도 했다.



권순웅 목사는 주다산교회를 개척하여 살롬부흥 목회의 목회 이론인 스파크 목회를 개발하여 적용하고 부흥했다. 스파크양육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복음마당(확신), 체할마당(성경), 실천마당(전도)이 있으며, 둘째날 저녁에는 치유세미나와 마지막날 오전에는 이단세미나인 다림줄세미나가 실시됐다.

이와 함께 이상화 목사가 ‘소그룹(셀) 중 요성 운영방안’에 대해, 권지현 목사가 ‘스파크양육 복음마당(복음기초 확산)’에 대해 강의했으며, 주다산교회 신교일 집사, 김은영 집사, 송해욱 권사, 김정대 집사, 심지혜 집사, 김미 권사의 간증으로 실천 적용방안이 제시됐다.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 과정 개설

한국미디어선교회, AI를 활용한 전도와 선교



한국 기독교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인공지능(AI)을 목회, 전도와 선교, 그리고 교회공동체와 다음세대 교육 활성화에 선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을 본격화하여 과정을 개설 진행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5월 31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4층 소망홀에서 진행된다.

미래목회포럼과 한국미디어선교회가 주최하고, 국제미래학회 및 글로벌 인공지능교육원, 한국기독교AI선교위원회가 주관하며, 전국기독교수련협회, 대한민국 인공지능포럼, 4/14원도우한국연합,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양성 과정은 급변하는 AI 시대에 크

리스천들이 챗GPT와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목회와 선교, 교회 공동체 및 다음세대 사역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천적인 방법을 익히게 한다. 특히 10만 크리스천 AI미디어선교사 양성을 주창하며 본 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은 “AI 기술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크리스천들에게 새로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제시하는 혁신적 자원”이라며, “AI 기독교 윤리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한 전도와 선교 및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 활성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크리스천들이 챗GPT와 최신 AI 기술을 전도, 선교, 다음세대 교육에 강력 한 도구로 선용할 수 있도록 본 실천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국제컨퍼런스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KNAADAC 공동주최 6월 6일



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 국제컨퍼런스’가 오는 6월 6일(금) 광명 라가사호텔 7층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돼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과 KNAADAC(한국 나약, 이사장 김도형 목사)이 공동 주최하

게 될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중독문제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중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강연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미국나약 수석교문 Cynthia Moreno Tuohy 강연자가 ‘미국 내 중독치료를 위한 실질적 상담 접근법’에 대해 강의하고, 미

국나약 대표 Terrence D. Walton가 ‘미국 중독문제의 법적인 측면’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마약사범 재활팀 최경찬 주무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재활정책’에 대해 강연하며, 마음사랑병원 중독팀은 ‘마음사랑병원 소개 및 중독병원치료의 실제’에 대해, 그리고 한국나약 이미국 대표는 ‘중독치료에서 가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각각 강연할 방침이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태를 전하는 것과 더불어 중독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컨퍼런스는 법무부, NAADAC, 마음사랑병원, 엠브렌스마인드, 어업코리아, CITS, 세움평생교육원이 후원하며, 신청마감은 5월 24일까지다.

△신청문의: 02)2681-2093, 또는 ww.w.knaadac (교육훈련 신청하기).

2025년 한국교회 총무회 정·총, 김종명 신임회장

한국교회 연합과 협력을 위한 중심적 역할 재확인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무(사무총장)들의 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무회가 2025년 한국교회 총무회 정기총회를 5월 3일 부활절연합예배 해단식을 겸하여 백석총회회관 2층 예루살렘홀에서 개최했다. 한국기독교 72개 교단 60여 명의 총무들이 모여 1년여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회기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교회의 연합과 협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중심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

정기총회는 회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회무에 앞서 개회기도에 부회장 박용규 목사(예장합동 총무), 회원 점명 서기 문창국 목사(기성 총



무), 의장 이영한 목사(예장고신 사무총장)가 개회선언, 전 회회록 낭독에 서기 문창국 목사(기성 총무), 감사 보고 감사 강동규 목사(예장개혁선교 총무), 회계 보고 회계 장인호 목사(예장대신 총무), 회무처리로 규칙개정

안이 상정되어 정기총회를 매년 5월에서 9, 10월 중으로 변경하여 업무 효율을 높였으며, 정회 후 곧바로 이어진 임원 선출에서 신임회장에 김종명 목사(예장백석 사무총장)가 선출되어 임원을 조직했다.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회 개최

아신대 다문화복지대학원, 상호문화교육 바탕 어울림

아신대학교 다문화복지대학원은 지난달 28일 한국어학당 베트남 유학생들을 위한 환영회를 개최했다. 이날 환영회에서는 손신 교수가 환영사를 전하고 이한영 부총장이 축사했다. 또한 정금영 동문회장은 유학생들에

게 인사말을 전하며 격려했다.

하태선 교수의 식사 기도 후 베트남요리인 반미샌드위치와 쌀국수, 한국요리 잡채와 찰밥 등 풍성한 저녁식사와 과일이 제공됐다. 2부 순서는 김한글 원주의 축가로 분위기를

돋웠고, 상호문화교육을 바탕으로 한 어울림 레크리에이션 시간도 가졌다.

더불어 4월 생일을 맞은 유학생들을 위한 생일 축하 시간도 이어졌고, 중간고사 우수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되며 특별한 격려의 시간이 진행됐다. 그밖에도 희망 풍선 날리기 시간에는 저마다의 희망을 담은 풍선을 날리며 미래를 다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보냈다. 전병철 교수의 마침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아신대학교는 앞으로 베트남 유학생 외에도 해외 학생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가질 계획이다.



고신엘더포럼 창립, 김형원 장로 초대 대표에

“하나님 뜻 실천하고 교회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겠다”

예장 고신측 시니어들의 모임인 고신엘더포럼은 지난 4월 24일 서울 잠실중앙교회에서 창립기념예배 및 총회를 갖고 김형원 장로를 대표로 선임했다.

대표로 추대된 김형원 장로는 인사말에서 “고신엘더포럼은 특정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한 진심의 모임”이라며 “기독교 세계관의 확장과 개혁신앙의 실천을 통해 한국교회와 고신교단, 그리고 개체 교회의 건강한 성장

에 기여하는 포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장로의 사역 영역 확대를 위한 헌신을 이곳에서 시작하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총회는 배영진 장로(평단협 회장)의 사회로, 조대형 장로(수장연 전임회장)가 기도하고, 김삼관 장로(전임 부총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형원 장로가 개회를 선언했다. 이어서 김연철 장로의 경과보고와 안건 토의,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이어졌다.

총회에서는 먼저 김형원 장로가 초대 대표로 추대됐으며, 고문과 자문위원, 실무 운영이사 등이 확정되며 조직 구성이 이뤄졌다. 이어 창립선언문이 낭독됐다. 손익 장로(수도권장로회연합회 회장)가 낭독한 창립선언문은 장로로서의 본연의 사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은 ‘고신엘더포럼은 교회의 장로서 정체성과 위상을 회복하고자 창립되었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믿는다’고 밝히고, △한국교회와 고신교단, 개체 교회의 발전에 헌신 △성경과 헌법이 가르치는 개혁신앙 수호 △정체성 및 선교 지평 확장 △연합과 일치를 위한 건전한 의견 제시 △장로다운 자세로 정체성 확립 등의 목표를 담았다. 전우수 장로(전장연 전임회장)의 기도로 폐회했다.



■ 생명의 말씀 ■



김 건 수 목사
• 제주한마음교회 담임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회장

히브리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세 사람을 들리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모세는 그들이 낱마다 외우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깊이 대면했으며 그의 인격과 충성은 물론 하나님이 기적적인 능력 아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존경하는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사랑 받고 교통하며 귀히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답부터 말씀 드리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요 14:12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하셨습니다. 다만 모세가 한 일은 모세에게만 주어진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나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귀한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우리의 일생을 준비해 오고 계십니다. 마치 모세의 나이 80이 되기까지 갓난아기로 갈대상자에 담겨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 3:1-5)

나일강변으로 떠나려갈 때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어 바로의 궁중에서 40년을 보내고, 그리고 살인자가 되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앙을 친 것도 알고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었느냐 벗지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80세 된 모세에게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헛바디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였습니 다. 이 순간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앙을 치는 미디안의 목동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양떼 같이 인도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구된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신을 벗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발을 벗어야 할까요?

1. 부정한 죄악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이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그 이면에는 네 발의 신은 부정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부정한 신발을 벗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은 행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신발을 벗음은 진실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신을 벗는 것은 과거와의 절대 단절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기를 소개하는 이력서를 쓰는데 이력서란 발을 리(履), 신바닥 력(歷), 즉 자기 발로 걸어온 경로를 쓰는 것이요, 신발이 다닌

자취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이제 모세의 과거의 이력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모세가 버려야 할 과거란 어떤 것일 까요? 모세가 버려야 할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한데서 온 열등감입니다. 또 모세는 혈기를 부리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혈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천하 인간 중에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없도록 변합니다. 과거와 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을 생각하거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음의 추한 신발을 벗고 이 과거와 단절을 성공해야 합니다.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딤후 6:11)고 한 것입니다.

2. 자기주장과 교만의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신을 벗음은 자기 권리의 포기 를 의미합니다. 룖 4:7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법정에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을 벗었습니다. 이방세계에서도 노예는 신발을 벗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권리를 주인에게 양양하는 것으로 자기 권리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자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권주의입니다. 모세는 자기 생각과 노력으로 동포를 구

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앙을 치며 이제 더 기대할 것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자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주장, 나의 교만, 나의 고집, 나의 방법, 나의 인생은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안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출입할 줄 알지 못하니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는 물론 다른 모든 것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모세로 치면 발에서 신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의 사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고백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그런 것입니다. 나의 부족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요 12:26)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교만과 나태와 불순종의 신을 벗기를 바랍니다.

3. 불신앙과 불순종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짚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신을 벗어야 들어가는 땅입니다. 수 1:3에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수 5:15에도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곳 즉 발바닥 도장이 어차지 신바닥 도장이어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며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신을 벗어야 가나안에 들어간다 했을 때 여기서 벗을 신의 의미는 불신과 불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불순종의 신을 벗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아름다운 모든 약속은 곧 천국의 혜택의 내용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고 또 믿고 생명 결코 믿으세요. 갈렙산에서 엘리여쳐람 사환에게 올라가 바라 비가 올 것이다. 가뭄라, 가뭄라, 가뭄라, 일곱 번이나 가보고 했던 것은 확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것은 믿음으로 혹은 행할 것은 순종함으로 모든 약속하신 것을 이 지상에서부터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신의 신발을 벗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하라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데. 과거에 그가 그분들을 평가한 것을 모두 철화한 것인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술은 매우 위험하다. 근본을 감추고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본성이 튀어나온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동정

제2차 학술세미나 김균진 박사



한국신학아카데미(원장 김균진 박사)가 지난 5월 9일(금) 서울 안암동 소재 크리스탈빌딩 5층 한국신학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구약율법과 신약복음의 구원관'이라는 주제로 2025년 봄학기 '해암 이장식 교수 기념 제2차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균진 원장의 사회로, 오성종 교수(전 갈빈대 교수, 신약학)가 '공관복음의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컨퍼런스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과 KNAADAC(한국 나다, 이사장 김도형 목사)가 공동 주최하는 '중독 없는 건강한 사회 2025 국제 컨퍼런스'가 오는 6월 6일(금) 경기 광명시 일직로 라까사호텔 7층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중독 관련 전문가와 관심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컨퍼런스는 이번이 7회째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한동대 청소년코딩 교육브랜드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 한동해지역혁신원은 청소년 코딩 교육 브랜드 'Re:Bot'을 론칭하고 지역 교육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한동해지역혁신원은 지난 4월 24-25일 양일간 포항시 한동해지역혁신원 제1리퍼스 파랑뜰에서 '2025 Re:Bot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차금법으로 교회가 무너지면 안돼



정소영 세틴트폴세기관아카데미 대표는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1기 출신 미국 변호사다. 다음세대에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라며 “영국 등 서구교회처럼 차금법으로 교회가 무너지는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공직선거법 유죄 받은 사람이 또 나오나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그 법를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다. 즉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갑자

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징역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입

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은 2020년에 대법원이 제대로한 판결을 내렸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범죄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조사 수위(首位) 후보라서 괜찮다는 것인가?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그가 과거 했던 말들도 문제가 많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연합 훈련 핑계로 자위대 군항할 한반도 더럽힐 수도 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세세 이리런 되지’ ‘종북몰이는 범죄 행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대선(大選)에 나가기 위하여 그 발언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고 있는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내외부의 압력에 의해 역사적 소임을 망각해선 안 되며, 보편인권의식을 견지하여 외국인보다 우리 국민을 먼저 챙기고, 일반 다수국민의 목소리를 결코 무시하지 말고 경청해주길 촉구한다. 아울러,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더이상 특정세력의 사주를 받는 편향성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괴롭히지 말길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며 우리들을 향해 ‘혐오세력’으로 공표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위어축제 측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배제당해온 우리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만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응석받이 행동을 중단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국민이 반대하는 ‘위어 문화축제’에 참가하고 재정지원을 해온 과거를 강력 규탄하며 더이상 용납지 않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중립의무를 위반한 인권위 공무원들이 편향된 언론방송 및 좌파·진LGBT 시민단체들과 지금까지 유착관계를 맺어온 것에 분노하며 강력 규탄한다!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특정소수집단을 비호하며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록 부추기는 한국기자협회와 협약한 ‘인권보도준칙’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우리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의 참석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위어축제 측의 요구에도 휘둘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직원들은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하며, 내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역사적 소임을 다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특정세력과 결탁하여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결정을 비판한 인권위 직원들의 오만불손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비판하며, 공무원직에서 물러나 시민활동가로 나서주길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만일 ‘인권위원회 엘라이모인’이 위어축제에 참여해 부스까지 차릴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고 형사 고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5. 5. 1.

거룩한방과제통합국민대회, 반통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학부모던체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통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번호사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교총회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교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대, 전국학부모던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약법대응본부, 건강강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M연합, 바른문화연대, 진실성서교육연구회, 올바른지식시민연대, 올바른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통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대,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국민기독교연대,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관목, 학생학부모민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R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성경캠프, 인권수호번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1면에서 이어짐

다음은 이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국민의 인권 역사별 중단하라!

우리는 어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무지개행동·차별금지법 제정연대 등이 안창호 위원장을 ‘혐오세력 대변인’인 것처럼 매도하는 기자회견을 연 사실을 알고 공분을 느껴 이 자리에 섰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터무니없음은 물론, 우리들을 향해 ‘혐오세력’으로 공표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다음세대 청소년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일평생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이다. 그리고 ‘거룩한방과제 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행복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행사를 개최해왔고, 매년 참여자 수가 늘어나 작년에는 20여 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행복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넘어서 다수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세대를 아우르는 폭넓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들을 혐오세력이라고 규정하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을 압박했는데, 대단히 모욕적이며 어처구니없는 망언(妄言)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자신들에게 통조하지 않는 다수국민을 혐오세력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이는 전형적인 파시즘적 사고이며, 자신들을 특권계층으로 인식하는 매

우 위협하고 독선적인 집단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 그 누구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건 전체주의자들의 광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오늘날 언론방송의 편향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다수국민의 보편인권을 주장하는 우리들의 기자회견은 철저치 외면하면서 LGBT 등 소수집단의 목소리는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상세히 보도하는 행태를 보여왔는데, 이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4항에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언론은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무차별 침해하고 있으며, 특정소수집단의 하수인이 돼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짓밟는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특정소수집단을 비호하며 맹목적으로 미화하는 기사를 쏟아내도록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인권보도준칙’을 협약했기 때문이다. 이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협약이기에 즉각 폐기해야 한다.

어제 뉴스기사 제목만 보더라도 “위어 축제 ‘불참’에 인권위 안팎서 ‘안창호, 혐오 편에 선 것…’위원장 ‘자격 없어’”, “성소수자 인권단체 ‘혐오 중립’운운한 안창호, 차별 동조”, “‘안창호는 혐오세력 대변인인가’…인권단체, 위어 축제 불참 인권위 규탄”, “내란옹호위원회 오명 쓴 인권위, 이제는 차별조장 위원회로 몰락하나” 등으로 언론의 노골적 편향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음란성 및 LGBT 미화로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가치관을 심어주고 있는 ‘위어문화축제’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맹목 옹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정론직필(正論直筆)’을 추구해야 할 언론방송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며, 진실한 정보를 유통시켜 사회의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적·비판적 역할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부패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공익적 의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는 매우 사악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또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지금까지 특혜를 누려온 결 정당하게 인식하는 특권의식과 진실 호도적 혐오의식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 2017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수국민의 비판·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위어문화축제를 지원해 온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한 채 국가인권위원회가 9년 만에 불참하며, 위어문화축제를 반대하는 성소수자 혐오세력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아 인권위가 양쪽 행사 모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을 큰 잘못이라도 한 양 호를 감춰고 있는데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배제당해온 사실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행태로 보이며,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응석받이 행동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는 오늘날 전세계가 정치적 올바름(PC주의, Political Correctness)과 선정주의, 소수집단에게 특혜를 주는 어퍼머티브 액션(A.A., Affirmative Action)에 오염돼있는 모습을 개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편인권 수호자인 국가인권위원회 안창호 위원장에게 다수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운동회 개최, 힘과 충전의 시간 가져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안종식 목사)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안병찬 목사)는 지난 5월 6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사전 참여 신청을 한 400

여 명의 성도들이 천안시 백석동 한서초등학교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에 모여서 한마음운동을 개최했다. 개회예배에서 안병찬목사는 오늘 이 시간에 영·육간에 충분한 힘과 충전을 통해서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쓰임 받도록 하자고 격려했다.

이어서 OX퀴즈를 시작으로 백팀과 청팀으로 나뉘서 각 기관별로 장애물통과 달리기, 풍선 밟기 게임을 비롯해서 15개의 다양한 게임과 경기를 진행하면서 풍성한 상품과 경품을 시상했고 청·백팀 줄다리기게임을 끝으로 열정적인 경기와 응원으로 각 소그룹들과 성도들 상호간의 단합과 우애를 다지는 알차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4월 28일(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순복음교회(담임 황용식 목사)에서 4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얼마남지 않은 대통령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도하는 한편 교단과 지방회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종 회무를 은혜가운데 진행했다.

이번 월례회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찬양과 신앙고백, 신홍섭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고후 5:17), 사모회의 특송, 김은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은수 목사는 고후 5:17 말씀을 본문으로 '새 사람이 된 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변화와 새 삶에 대해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말씀의 열매, 교단과 지



방회,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한 합심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김진희 목사의 봉헌기도와 찬송, 사회자의 광고,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이어진 2부 순서인 월례회에서는 김은수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서기 성기찬 목사

의 회원점명, 보고사항 및 안전토의를 진행하고, 지방회 운영의 주요 사안들을 논의했다.

영남동지방회는 지역 교회의 연합과 성장, 그리고 영적 교류를 위해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다.

“다음세대를 지키는 방파제 되자”

6월 14일 쿼어축제 반대 국민대회 열린다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7일(목)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14일 광화문, 시청, 송대문 일대에서 ‘다음세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자’는 주제로 대규모 국민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쿼어문화축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인권정책기본법안 등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저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장 오정호 목사(새로남교회)는 “젠더이데올로기와 성혁명의 공격은 마치 영적인

쓰나미와 같다”며, “선진국들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무너지는 것은 거룩한 방파제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용희 목사(예스더기독교운동)는 “국민 여론을 통해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을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회가 국가와 교회를 지키는 ‘영적요충지’의 역할을 해 왔다고 강조했다.

준비위원장 이용희 목사(예스더기독교운동)는 “동성애축제 반대 통합국민대회는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우리 다음세대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며 “통합국민대회는 먼저,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

이다. 통합국민대회로 모여 이 장소를 거룩하게 지켰기에 동성애 축제에 모인 동성애자들이 이 중산도에서 동성애 퍼레이드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i&s)는 쿼어축제 참가자의 다수가 젊은 세대임을 지적하며, “동성애의 실상과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한수 목사(제자광성교회) 역시 “지금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세대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대회는 특별기도회와 개회식, 국민대회, 퍼레이드, 문화공연으로 구성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태아 생명 보호 등 기도제목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청년위원장 김혜수 씨는 성명서를 통해 “쿼어행사는 헌법을 위반하고, 음란성과 선정성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며, 행사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준비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시민들과 교계가 대거 참여해, 쿼어문화축제에 대한 국민적 대응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살롬나비, 제60회 월레포럼 개최

“위기의 대한민국,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4월 27일(주일) 오후 7시에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동산교회(유종필 목사 사무)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를 주제로 제60회 월레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예스더기독교운동 대표 이용희 교수가 맡았다.

월레포럼은 김윤태 사무총장(전 백석대 교수)이 은혜롭게 인도하는 가운데 동산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강연에 앞서 합심기도는 ‘한국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 살롬나비 총무인 이관표 교수, ‘한국사회와 안정을 위하여’ 구제이사인 이은희 집사(명기엔트리 대표), ‘세계선교와 난민을 위하여’ GMS 원로선교사인 방선이 선교사가 대표로 인도했다. 살롬나비 행동강령은 이관표 총무(한세대 교수)의 선창으로 낭독했으며 모든 순서는 육호기 목사(GMS 원로선교사)의 축도 후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했다.

이용희 교수(예스더기독교운동 대표)는 “위기의 대한민국, 무엇을 기도해야 하나?”라는 주제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선출과 미래 사회의 방향성에 대해 강연했다.

딤편전 2:1~4 말씀을 중심으로한 강연에서 이 교수는 위기의 상황일수록 바울의 언급처럼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현재 위기인 것은 무엇보다 분명한 상황이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경제는 경고를 받았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및 사회의 기본적 질서는 패망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것은 성경의 근거 위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2절에서 임금들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한다. 여기서 임금과 권세가는 단 한 명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는 곧 크게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작게는 학생이 교수를 위해, 교수들이 종장과 총학생회를 위해 기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의 말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받으실만한 기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한 사역이다. 이러한 기도를 구약에서는 회개와 금식으로 말하고 있으며, 미스바, 여호사밈, 에스더, 니느웨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회개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강연 도중에는 대선을 앞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한 통성기도의 시간도 가졌다.

살롬나비 김영한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국의 미래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달려있음을 강조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폭력, 젠더평등을 통한 혼란, 암시즘에 의한 경제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은 더욱 더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월레포럼에 앞서 개최된 4월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제30회 학술대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등 2025년 상반기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 학 과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신학과 (신입생) | 3년 6학기 (140학점) |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
| 신학과 (편입생) | 2년 4학기 |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영합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http://gd.ucts.org>

2025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서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 학 과 | 과정 | 수업연한 | 지원자격 |
|------|----------------------------------|------|--|
| 목회학과 |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 3학차 |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응시 허락을 받은 자 |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① 원서 교 부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③ 원서 접수 : 수시 ④ 합격자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영합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 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http://gd.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13회 정기총회

| 2025 전국사모회 전임회장단 | | | | | | | | |
|---|---|--|---|---|---|---|---|---|
| 고문 | 고문 | 전임회장 | 전임회장 | 전임회장 | 전임회장 | 전임회장 | 전임회장 | 직전회장 |
|  |  |  |  |  |  |  |  |  |
| 최해선 사모 기흥교회 |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 김양란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 윤금자 사모 전주은혜와진리교회 |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

| 2025 전국사모회 임원진 | | | | | | | | | | |
|---|---|---|--|---|---|---|---|---|---|---|
| 회장 | 수석부회장 | 제1부회장 | 제2부회장 | 총무 | 부총무 | 서기 | 부서기 | 회계 | 부회계 | 재무 |
|  |  |  |  |  |  |  |  |  |  |  |
| 이을순 사모 갈릴리큰소망교회 | 손선희 사모 홍재은혜교회 | 손정희 사모 화평교회 | 최인석 사모 부산갈릴리교회 |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 박미영 사모 순복음한마음교회 | 김재희 사모 색종이교회 | 김길순 사모 순복음성산교회 | 나명숙 사모 성주반석교회 | 이soon 선 사모 시온순복음교회 | 최윤정 사모 연암순복음교회 |

[일시] 2025년 5월 19일(월)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오후 1시 예배 후 사모회 총회)

[장소] 은혜와진리교회 3층 세미나실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 사모,
교단상하 전국교회 목회자 사모

[계좌] | 농협 352-2197-4294-03(최윤정, 재무)

A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이을순 · 총무 김세희 (010-2610-3816)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5년 부흥사회

2025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표고문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전임총회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 유봉수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 배진기 목사 (안디곡교회) | 진동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 김용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 최광택 목사 (일산은혜교회) |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 김인규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 김양호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 임홍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 신재명 목사 (새감천교회) | 김병목 목사 (금남대림교회) | 김경준 목사 (갈릴리온소망교회) | 정부용 목사 (대림벨로교회) | 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 김진진 목사 (재천순복음임문교회) | | | | | | |
| 회장 | 수석부회장 | 부회장 | 부회장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상임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김건수 목사 (제주한미교회) | 조길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 김바울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 임형선 목사 (순복음아미교회) | 오승욱 목사 (천안서북교회) | 황은옥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 김종연 목사 (의정부은혜교회) |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 조은혜 목사 (순복음은혜와사랑의교회) | 윤혜영 목사 (순복음추진미교회) | 조신남 목사 (대림벨로교회) | 김병호 목사 (순복음행복한교회) | 박홍렬 목사 (오성사라교회) |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회) | 김명우 목사 (순복음열방교회) | 정환무 목사 (사랑이넘치는교회) | | | | | | |
| 서 기 | 재 무 | 회 계 | 감 사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정 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성기찬 목사 (동물산순복음교회) | 옥보애 목사 (소망니교회) |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 최남성 목사 (동강순복음교회) | 윤성수 목사 (진주은평교회) |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루교회) |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 주창민 목사 (순복음벨로교회) | 우광덕 목사 (선한목자교회) | 기호선 목사 (괴산순복음교회) | 이형은 목사 (은혜로교회) | 황연선 목사 (순복음빛있는교회) | 예정희 목사 (예수사랑교회) | 김희자 목사 (새로와지는교회) | 조미숙 목사 (주님의은혜교회) | 박은정 목사 (엘림교회) | 안병찬 목사 (순천아름다운교회) | | | | | | |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 장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상임총무 조은혜 목사 HP : 010-5649-5121

스포츠 선교회 걷기동우회 모임안내

- ✚ 11시00분 : 예배 및 기도회
- ✚ 13시00분 : 점심식사
- ✚ 14시30분 : 맨발 걷기
- ✚ 16시30분 : 차와 은혜 나누기
- ✚ 17시30분 : 식사 후
다시 목회 현장으로

- **일시** : 2025년 6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전원성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TEL: 031)227-5992-3
- **대상** : 본 교단에 소속된 목회자로서
교단을 사랑하고 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시는 분
- **문의** : 정영진 목사 010-3590-3156

고려인 국제대안학교 건립 ‘구해줘 스쿨’ 캠페인

한국해비타트, 언어장벽·편견으로 일반학교 진학 어려워

국제 주거복지 비영리단체 한국해비타트에서 국내 최초 고려인 국제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구해줘 스쿨’ 캠페인을 시작한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언어 장벽과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 청소년 50여 명이 다니는 고려인 대안학교는 남녀공용 화장실이 한 개뿐일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며, 단체 생활에 적합하지 않아 정식 학교로 인가받지 못해 학력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고려인 청소년들은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도 출석률이 99%에 이를 만큼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고, 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대기자가 100명이 넘는 상황이지만, 한정된 시설과 공간으로 현재 수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구해줘 스쿨’ 캠페인에 참여하면, 고려인의 강제 이주가 있었던 1937년을 기억하며 1,937원을 후원하고, 고려인 출신 모델 박유리과 고려인 학생들의 손글씨로 제작한 폰트 ‘해비타트 고려인체’를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손글씨는 스타린에 의해 고려인 정체성 말살을 목적으로 한국어 사용과 교육이 금지되던 시절에도 지켜낸 언어와 정체성을 상징하며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참여자는 캠페인 홈페이지에서 ‘일일 학생증’을 만들고 손글씨 폰트로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으며, SNS 인종 이벤트를 통해 매일 추첨으로 ‘구해줘 스



쿨’ 피규어 블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우리나라 최초 고려인 국제 대안학교 건축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해비타트는 3인 1실 기숙사 40실, 7개의 교실, 식당 등을 포함한 150명 정원의 기숙형 정규학교를 조성할 계획이다.

캠페인 모델 박유리 씨는 “고려인은 같은 한국인이자 한민족, 나의 뿌리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고려인에 대해 알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해비타트 이광희 사무총장은 “고려인 학생들은 서물지만 진심을 담은 손글씨로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 손글씨 폰트를 제작한 이유”라며 “‘구해줘 스쿨’ 캠페인을 통해 고려인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블랙핑크 제니가 팬클럽 BLINK 이름으로 1억 원을, 가수 선은 6천 5백만 원을 고려인 청소년들을 위해 후원한 바 있으며, ‘구해줘 스쿨’ 캠페인은 한국해비타트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다.

총동문대회·교역자부부 초청수련회 개최

서울신대, 학생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

서울신학대학교(총장 황덕형)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25년 총동문대회 및 전국교역자부부 초청수련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신학대학교 동문과 교역자 부부들이 함께 모여 친목을 다지고, 학교의 비전과 미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대회 첫날에는 개회예배와 탁구대회가 진행됐으며, 개회예배에서 황덕형 총장은 명예대회장으로서 인사말을 전하고, 총동문회장 주기철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인사말을 전한 황덕형 총장은 “서울신학대학교는 1911년 민족의 절망 속에서 성경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선배들의 헌신이 오늘의 기반이 되었다”며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동문들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여진 ‘서신인의 밤’ 축하공연에서는 서울신학대

학교 교회음악과 합창단 ‘카펠라’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주께 가까이’ 등의 곡을 통해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실용음악과 송영주 교수와 정우 학생의 찬양 및 피아노 연주, 총학생회의 워십 공연이 이어져 동문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행사 말미에는 한기재 이사장이 서울신학대학교를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이사장은 “서울신학대학교의 가장 큰 자산은 동문”라며,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하는 ‘OLD & NEW’ 대학으로 나아갈 비전을 밝혔다. 또한, 애즈베리 부흥운동을 언급하며 “우리 학교도 학생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예비신자들이 좋은 크리스천으로 자라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문들의 기도와 후원을 요청하며, ‘ARS 1통화 1만원’ 모금 캠페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서신인의 밤’은 올해로 4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총동문대회의 하이라이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살롱논평

대법원의 파기환송 및 고법의 파기환송심 연기 논평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의 빠른 파기환송 판결로 지난달 한재의 8:0 대통령탄핵 인용 편파적 판결로 인해 신뢰와 권위가 추락한 사법부가 신뢰를 되찾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이른바 ‘김문기 골프’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초유의 신속 사건 판결을 하여 2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여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해의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것과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말한 것을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 2심은 이 발언들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이라며 전부 무죄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선고는)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한국갤럽은 5월 6일 중앙일보 의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42%로 조사됐다. 20대(18~29세)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1%,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24%였다. 30대에선 ‘잘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이 30%였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나 거대 야당의 탄핵 위험을 동반한 대선이후로 연기 요청에 즉각 굴복하여 서울 고법이 대선 이후로 파기환송심을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대법원이 결과적으로 2심의 오심(誤審) 판결을 파기자판으로 매듭짓지 못한 허술한 판결이 된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다. 살롱나비는 이를 안타깝게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조희대 대법원의 신속 판결은 사법부가 사회 정의의 최후의 보루(堡壘)임을 보여주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 선거법 사건은 유례없는 사법 불신이 있어 신속처리”해야한다고 표명했다. 그는 약속한대로 2심이

1심 유죄 선고와는 달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으로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그동안 사법 판결이 너무나 지연되어 윤미향, 황운하(1심 3년형 유죄, 2심 무죄판결) 등 유죄판결 받은 인사들이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우는 비정상적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이재명 후보도 법에 규정된 대로 선거법 재판이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났다면 이 후보는 지금 출마는 커녕 정치권에 있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이 이 후보의 법적 적합성, 정통성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5·1대법원 판결은 국민적 법 상식을 되살린 것이다. 대법원에서 2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은 기속력(拘束力)이 있어 새로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않는 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양형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 조희대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 무너진 법원의 정의를 되살렸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허위 증언 선거법에 걸쳐 출마 자격을 상실한 이재명 후보에 대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권순일 재판관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낙선 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고, 거대 야당의 당수가 되어 이번에 다시 야당 대선후보가 되는데 비롯된다.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자기편 봐주기, 재판 지연, 이법 재판, 개인 도덕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법 정의가 손상되었다.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서부지법 판사들의 불공정한 영장 집행에 화나 젊은 청년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일어난 사건이다. 현재의 8:0 대통령 탄핵 인용에 의하여 사법부의 불신이 커졌다. 그리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도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죄 판결받은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받아 다시 사법 정의가 추락하는 형편에 처했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10:2로 유죄를 확정하는 것은 우리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다.

3.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발언은 모두 허위”라고 1심판결을 인정한 것은 상식의 승리다.

대법원은 “선거인(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 의미를 해석해

야 한다”고 천명했다. 선거법상 ‘허위 사실’은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유권자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 것이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다.

대법원은 “정치인 허위 발언은 일반인보다 엄격한 책임 물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법원은 정치인의 발언 진위를 유권자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재명 골프 발언 들은 일반 선거인은 골프 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판결했다. “국토부의 협박 받았다”는 발언도 유권자에 잘못된 인상 줄 수 있다”고 보았다.

4. 대법원이 파기자판(破棄自判)했다라면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사회적 에너지 소모를 방지했을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번 사건은 상식으로 봐서도 파기자판해야 하는 사건이다. 대통령까지 탄핵 인용해 파면한 사법부(현재)가 법을 엄격히 적용해서 거대 야당편에 섰다는 비난을 피해야할 것이다. 파기자판이란 원심을 파기한 뒤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원심이 유죄일 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일 때는 형량까지 정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파기자판은 재판 종결로서 현재의 판결처럼 모든 논란을 잠재우는 판결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지않음으로써 거대 야당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장 탄핵 위험 및 청문회로 소환하는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앞서 유죄를 인정해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사실상 그대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했으면, 1심처럼 이 후보의 선거 출마가 제한되는 형량(벌금 100만원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과 동시에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고, 국회의원직도 잃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지연된 정의(1-2심까지만 2년 6개월)가 바로 잡혀지고 법치주의가 제대로 세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자판 대선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이 후보 측

이 재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쳐 5심(5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달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가능성도 높아졌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도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사회적 에너지를 허비하도록 하는 것이 된다.

5. 서울 고법이 파기환송심을 거대 야당의 탄핵 위험에 굴복하여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연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일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심리 날짜 연기에 대해 신중한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1·2심만 2년 6개월을 끈 이 사건은 이미 증거 조사가 다 이뤄졌고, 사실관계가 달라진 것도 없다.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 하는지 법리 판단만 하면 된다. 그것도 이번에 대법원이 유죄라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만큼 더 할 것도 없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고법 형사부 재판부는 5월 15일로 잡은 파기환송심 일자를 거대야당의 위협에 못이겨 대선 이후 6월 18일로 변경하였다. 이유는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이 탄핵하겠다는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투표하기전 형사피의자가 대통령에 선출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정리를 해주어야 한다. 이미 야당은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까지 만들어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고 법원인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하는 기속력(拘束力)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도 유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2심은 이 후보 발언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전체적 인식을 살피지 않고 말 자체를 조각내고 분해해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이면 어떤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유죄포가 있을 필요도 없다. 말장난 같은 2심 판결은 궤변에 가까웠다. 대법

원은 이 후보에 대한 구체적 형량은 선고하지 않았지만 선고 내용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다를 게 없다. 이 형량대로라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하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6. 거대 야당의 공판기일 변경 위협과 대법원장 및 판사 탄핵 시사는 삼권분립의 파괴행위다.

다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진행하지 말라고 압박하며,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5월 12일까지 잡혀있는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고등법원 판사들을 탄핵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요구는 삼권분립에 대한 훼손이며 재판 독립성의 침해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하급심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라는 요구다.

거대 야당은 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관련 형사재판을 정치시키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고, 행안위에선 이재명이 기소된 허위 사실 공표죄의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후보는 선거법 사건에서 ‘면소 판결’로 처벌을 피하게 된다.

민주당은 거기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얹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계산일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입법부의 폭거에 의하여 31명의 관료들이 졸 탄핵을 당했고, 대통령까지 탄핵당해 면직되었는데, 대법원의 재판까지 거대 야당이 장악하려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행위다. 이는 의회 독재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거대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하지 말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7. 사법부는 우리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통하고 상식과 양심이 승리하는 사회 정의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법원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오늘날, 이재명 재판은 ‘정치화된 사법’의 대표적 사례로

화자되고 있다. 일부 판사들의 일탈 문제는 실재하는 위협이다. 철폐되지 않는 정치 성향, ‘우리법연구회’ 같은 특정 집단의 이념적 편향성이 걸러지지 않고 판결로 표출되어 사법부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은 우리 사회에 상식과 양식이 통하는 법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있다. 그것은 법치주의가 확립되는 것이다. 법치주의가 형식적으로 대법원이나 현재의 최종 재판에서 끝나는 제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대법이나 현재의 선고에 대하여 공감을 갖도록 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순일 재판, 2심 무죄 선고 등으로 오늘날 사법부의 재판은 상식과 양식에서 벗어난 판결로 인해 사법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5월 2일 이재명 파기환송심을 하루만에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입법부의 탄핵 위험에 굴복하지 말고 파기환송심을 법리적으로 처리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8. 한국교회에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지켜보는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구약 예언자 이사야는 당시 예루살렘 도시에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정의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부의 관원들이 뇌물을 받고 정치를 그릇되어 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다.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장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사 1:21-23)

한국교회는 우리 사회 재판에 있어서 진정한 정의가 구현되는지를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묵하자의 설교 강단은 예언자의 소리, 하나님의 정의를 외쳐야 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사 1:27).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2025년 5월 2일
살롱을 꿈꾸는 나비행동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시대”

한국, 유소년(0~14세) 비율 세계 최저

한국의 유소년(0~14세) 인구 비율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로, 저출산 장기화에 따른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유엔 ‘세계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유소년 인구는 10.6%로, 일본(11.4%)보다 낮고 조사 대상 3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프랑스(16.5%), 미국(17.3%) 등 서구국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20년 이후 계속해서 유소년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은 이 수치가 2025년 9.7%,

2060년에는 6.9%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1명도 어린이가 아닌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생산가능 인구 감소, 교육 및 국방 체계 변화 등 광범위한 사회적 재편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며 11년 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여전히 출산율은 0명대에 머물고 있어, 일시적 반등에 기대기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전환과 사회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신대학교, 개교 51주년 기념예배 드려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

2025년 5월 8일(목), 아신대학교(총장 정홍열)는 아신대학교 강당에서 개교 51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교직원, 재학생, 동문, 이사진 등 내외빈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학교의 정체성과 비전을 다시금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예배는 정홍열 총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박장혁 이사(트리교회 담임목사)의 기도로 이어졌다. 특송으로는 AIGS(아신대학교 국제교육원) 학생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이 날 말씀은 학교법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이장호 이사장(높은뜻광성교회 담임목사)이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라는 제목으로 전했다. 이 이사장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해오신 지난 51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 진리에 기초한 선교적 정체성을 지키며,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근속패 수여식이 있었다. 30년 근속에는 채광석 직원, 20년 근속에는 류승희 직원, 10년 근속

에는 이수인 교수가 각각 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자랑스런 ACTS 동문상’도 수여되었다. 수상자로는 김미연 동문(아세아학과 86,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김광배 동문(신학과 87, ACSA 초대회장), 박효준 동문(신학과 99, ACSA 초대총무)이 선정되었으며, 총장이 직접 시상했다.

축사 순서에서는 주경훈 목사(신학과 95, 오륜교회 담임)의 영상 축사와 김순준 목사(아세아학과 89, 학부총동문회장)의 현장 축사가 전해졌으며, 감사 예배는 이재훈 이사(온누리교회 담임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기념촬영 후 참석자들은 따뜻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개교기념을 축하하며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아신대학교는 1974년 설립 이래, 복음주의 신학과 세계 선교를 위한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정신을 바탕으로 수많은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해 왔다. 이번 51주년 기념 예배는 과거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왕상 8:36)

5월 새날이 시작되었다. 단했던 하늘을 활짝 열고 성령의 이룬 축복의 비와 늦은 축복의 비를 주시사 5월 축복의 간증, 기적의 간증, 치료의 간증이 넘쳐 나시기를 축복한다.

가족세트전도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렇게 인사하면서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한다. 모두 믿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בל료의 가정, 루디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과 같이 세트로 모든 가정이 사람으로 하나 되고 영접기도를 통해 구원의 길로 인도되길 바란다고 한국교회 가정들을 향하여 오늘도 외치고 내일도 외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중차대한 결단도 서슴치 않고 올인 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가정의 귀함을 다시 한 번

알게 한다.

누님과 동생들이 모두다 구원 받아 권사가 되고 남동생은 해남 고향의 면사무소 면장으로 동네의 모든 이들을 섬기고 있다. 박영수 목사는 일찍이 전도자로서 한국교회와 세계인들을 향해 5대양 6대주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오늘도 내일도 동분서주 말씀을 전하기 위해 뛰고 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가족세트전도 총괄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전국 20개 교회 889 성도들, 장기기증 희망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감사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지난 3~4월, 전국 20곳의 교회에서 생명나눔예배를 드리며, 총 889명의 성도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고 알렸다.

먼저 강원도 원주시 원주영강교회(이섭 목사)는 지난달 13일 종려주일을 맞아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 참여한 성도 77명이 생명나눔에 동참했다.

우상인 성도(33세)는 “10년 전 먼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던 아내를 따라,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참여하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1991년 첫 생명나눔예배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생명나눔 확산에 앞장서며 소외된 이웃을 섬겨온 원주영강교회는, 현재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 누적 477명을 기록하며 신앙의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복교회(여성현 목사), 고양제일교회(이부형 목사), 광덕교회(윤한규 목사), 광안중앙교회(김상수 목사), 마석교회(곽병태 목사), 망양교회(이선하 목사), 민정교회(최연철 목사), 사자교회(전준택 목사), 새군산교회(시현식 목사), 새생명교회(강정식 목사), 선한교회(박진욱 목사), 선한교회(김병수 목사), 세린교회(안성복 목사), 안양석수교회(김찬곤 목사), 연산교회(김지원 목사), 영신교회(윤종필 목사), 진주교회(김기덕 목사), 현동살림교회(이강희 목사), 햇빛교회(임정인 목사) 등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고 889



명의 성도가 이웃을 위해 서약했다.

김동엽 상임이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신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장기기증이라는 사랑의 결실이 더 많은 생명에게 닿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명나눔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월간목회’ 5월호

‘청지기라는 정체성’, ‘그에 합당한 삶’

「월간목회」 2025년 5월호에서는 ‘청지기라는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삶’을 주제로, ‘부’와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한 깊은 통찰과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재물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전 영역에서 깊이 연결된 주제다. 그러므로 재물에 대한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이 말하는 재물에 대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한 소유자가 아닌 ‘청지기’로 부르셨고, 맡기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 활용하길 원하시는 것이다. 즉 돈의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를 위해 흘려보내는가에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농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쥐실험)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냄)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급성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탁시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6)칼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

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고난 이해하기



고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보다 괴로움을 더하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세상이다. 고난의 신앙적인 이해는 ‘고난으로 인하여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이다.

물과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물과 공기로 치명적인 병이 전염되고 있으며, 그 해결책은 항상 닛을 수밖에 없다. 매르스와 사스의 공포가 있 허질만하니가 더 무서운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강습했다.

수년간 전세계에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인의 식습관이 원인일 것이다. 또는 고위험군 병원균 연구소에서 유출되었을 것이다’ 등의 추측만 있을 뿐, 치료의 특효약도 없고, 전파력이 강하다는 것만 알려져 있으니, 그래서 두려움이 더 컸다. 온 세계가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서로 조심한다. 두려운 일에 대하여 조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법인데 고난이 우연한 발생일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고난이 우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괴롭고 어려운 일, 고난은 세상에 널려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 [에텐의 강]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자연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고난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사람들이

벌이는 의도적인 위험한 일, 즉 유전자 복제, 더욱더 강력한 인류 파멸의 전쟁 무기 등 그리고 우주에서 발생하는 인간이 조치할 수 없는 너무도 위험한 일 이 매일 반복되는 것이다.

고난은 물리적인 것이 있고, 정신적인 것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고난의 시너지는 더욱 커져서 인생들의 슬픔은 더해진다. 특별히 고난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이라면 두려움이 더 커진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의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고난을 처리하고 위로할 만능열쇠 같은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때때로 엄습해 오는 두려움과 고난에도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는데 그것은 사실이다.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소망하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 하였던 고난도 하나님께는 그 일이 새로워서 해결해주시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으실 것이다.

고난은 우리를 새롭고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욥 5:7)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왜 교회에 나오니?

어느날...
주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교회)에 나갔더냐?”
사람에게 시험 들러는 찰나였지요.

예수님이 정말 믿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알고 싶어서 왔다는
나의 목적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 간절함을 아시는지
“내가 누군지 알 때까지는 그 어떤 것에도
시험에 들어선 안된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길로 나가 생명 없는 길로 갈 뻔한 인생.
방향을 바로 잡고 말씀에만 집중하던 어느 날.
어둠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지금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눅 7:24 말씀 앞에서 40년 전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
추억하며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본다.

사설

사욕을 따르는 자

87년 체제 이후 우파 좌파가 번갈아 가면서 대권을 쥐었다. 대권을 쥔 리더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파인 가 좌파인가를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지금까지 한 발언과 노선의 결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과도 다르고 심지어 문재인보다 훨씬 좌 쪽으로 경도(傾倒)돼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평가다.

그는 87 체제 이후 가장 분명하고 뚜렷한 좌파 지도자임을 견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1인당처럼 행동하고 있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민주당이 그동안 해 온 행태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무엇일까? 삼권분립이다. 독재정권은? 삼권분립이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어떤 정당일까? 독재당일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일까?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이 후보는 말하기를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기득권 세력이 누구일까? 지금 대한민국 최대 기득권은 압도적 의석으로 폭주하는 민주당이다.

그렇다면 이 후보는 자기 자신과 싸운다는 것일까? 우리가 알거니와 민주당 이후에 우리나라에 ‘정치범’은 없습니다. 삼권분립도 자리잡아 ‘성공한 민주주의’라는 전 세계의 평가를 받고 있다. 정권 지시에 따라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국가는 독재국가 뿐이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떤 행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나.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획해 사법 폭동에 가담한 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이고 집행자’라고도 했다. 파기환송 재판부에 대해서는 ‘15일 첫 공판 기일에 유죄를 선고하면 큰일’이라며 14일 이전에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했다. 즉 이 후보 유죄 선고가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판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온갖 억지와 떼쓰기 전략으로 사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민주화에 접근했던 몇몇 국가가 다시 독재 국가로 회귀했던 국가들의 행태가 바로 사법부 공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행태를 대한민국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독재국가로 가겠다는 의도다.

헝가리와 폴란드 다수당은 각각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자기편으로 강제 변경하는 방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했다. 동시에 삼권분립이 무너져 독재국가로 회귀한 것이다. 페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3연임을 위한 판결하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7명 중 3명을 해임하기도 했다. 기가 막힐 일이다. 천 년 만년 권력을 향유하려는 듯 눈 가리고 아~혼 한 것이다.

그 권력이 천 년 만년 같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당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늘어난 대법관에 ‘민주당 판사’를 앉혀 사법부를 자기네 하부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독재 정권으로 가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부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뭐라고 했나? 섬뜩한 말을 했다. 소름이 췌~악 끼치는 말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말까지 한 것이다. 노골적으로 독재국가로 가자는 말이다.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를 탄핵으로 위협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려는 정당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당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모인 당을 거대당으로 만들어 준 유권자들이 매우 우감스럽다.

이렇게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정당과,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큰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저 상식적이고, 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진목회 회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딤후 4:3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4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4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총회일자 : 2025년 5월 19일(월)
2. 등 록 : 5월 19일(월) 오전 11시부터
3. 개회예배 : 5월 19일(월) 오후 1시
4. 사무총회 : 5월 19일(월) 오후 2시 30분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5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영 준